

임성재, 강풍 뚫고 언더파 혼다클래식 3R 공동 7위

선두 존스와 5타차... "17번홀 더블보기 어렵다"



임성재

17번(파3) 홀 더블보기가 못내 아쉬웠지만, '역전 우승'의 희망을 이어 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하루였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 임성재(23)가 무빙 데이 톱10 진입에 성공했다. 2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스의 PGA 내셔널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 혼다 클래식(총상금 700만 달러·79억3000만 원)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언더파 69타를 적어냈다. 1, 2라운드에서 각각 2언더파를 쳤던 임성재는 합계 5언더파 205타를 기록하며 공동 16위에서 공동 7위로 순위를 9계단 끌어올렸다.

무빙데이를 맞아 바람까지 많이 불며 선수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선두였던 에런 와이즈(미국)가 무려 5타를 잃으며 합계 7언더파 공동 2위로 내려앉았고, 리더보드 최상단은 1타를 줄여 합계 10언더파 200타를 마크한 맷 존스(호주)가 점명했다. 임성재와 1위 존스는 5타 차.

3번(파5) 홀에서 첫 버디를 잡은 임성재는 5번(파3) 홀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6번(파4) 홀에서 4.5m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어뜨리며 다시 분위기를 뒀다. 12번(파4) 홀에서 7.5m 버디를 낚아 상승세를 이어간 뒤 14번(파4) 홀에서 재차 버디 사냥에 성공해 공동 5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그러나 17번 홀에서 2타를 잃으며 아쉽게 선두권 도약에 실패했다. 병커와 워터헤저드가 많아 '베어 트랩'으로 악명 높은 15~17번 홀 중 마지막 17번 홀에서 티샷이 벅커로 향했고 하필이면 불은 달걀 노른자처럼 모래에 폭박한 '에그 프라이'였다. 핀을 직접 공략할 수 있었지만 그린 뒤 급경사로 이어지는 워터 헤저드에 물이 빠질 것을 우려해 핀 대신 일부러 왼쪽 러프로 불을 보냈고 결국 한개번에 2타를 잃었다.

임성재는 "그런으로 치면 100% 물에 빠질 가능성이 커 레이아웃을 안전하게 보기로 막으려고 했는데 더블 보기를 해서 좀 아쉽다"고 17번 홀을 돌아본 뒤 전반적으로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고, 작년과 코스 컨디션이 나 상황이 상당히 비슷했다. 언더파로 마쳐서 잘 끝낸 것 같다"고 만족스러워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도쿄올림픽 7월 개최...해의 관중은 불허 결정

관중 제한 경제손실 무려 17조원!

(해외+일본 관중)

IOC·일본정부·조직위 등 공식화 63만여장 해외 티켓 조만간 환불 바흐 "안전한올림픽 위해 불가피" 일본 언론 "국내 관중 절반 감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은 7월 예정대로 개최된다. 다만 해외 관중은 없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일본 정부, 도쿄도,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20일 온라인으로 5차 회의를 열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서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지난 3일 이어 2번째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앤드루 파슨스 IPC 위원장, 하시모토 세이코 대회 조직위원장, 마루카와 다마요 일본 정부 올림픽담당 장관, 고이케 유리코 도쿄지사 등이 참석했다. 1차 회의에선 해외 관중 수용 여부를 이달 내 결정하기로 합의했고, 이번 2차 회의에선 '해외 관중 불허'로 결정했다.

여전히 가지지 않은 코로나19 여파로 일본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 신규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IOC와 일본 정부는 최대한 시간을 보내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오른쪽 TV 화면)이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일본 정부, 도쿄도,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5차 회의에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도쿄올림픽의 '해외 관중 불허'가 결정됐다. 도쿄 | 신화통신

추이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일본 내에서도 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바흐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지구촌의 올림픽 가족들과 팬,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과 가족, 친구들의 실망을 이해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안전한 대회' 원칙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회 입장권 환불 절차도 조만간 진행된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판매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티켓은 63만여

장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일본 정부와 조직위는 해외에 거주하는 대회 자원봉사단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 국민과 일본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 관중 운영 방안 역시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조직위는 최악의 경우 무관중 대회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무기가 실리는 안은 관중을 경기장 수용 규모의 50% 이하만 받는 형태다. 교통수단을 비롯한 복수의 일본 매체들은 "50% 이하 관중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상 조유의 해외 관중 없는 올림픽이

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올림픽 특수를 기대했던 관광업계의 실망감이 특히 대단하다. 국내 관중만 50%로 제한해 받아도 경제적 손실이 약 1조6258억 엔(약 16조9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 중 해외 관중 포기만 2000억 엔(약 2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미야모토 가쓰히로 당시이대 명예교수는 일본 언론을 통해 "일본이 관광객 유치로 통한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큰지 새삼 확인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차준환

'피겨 왕자' 차준환, 세계선수권서 4회전 점프 완성도 높일까

25일 쇼트·27일 프리스케이팅 나서

한국남자피겨스케이팅의 간판스타 차준환(20·고려대)이 데뷔 후 2번째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가 22일(한국시간)부터 28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남자 싱글에 출전하는 차준환은 20일 스톡홀름으로 출국해 대회 준비를 시작했다. 25일 쇼트프로그램과 27일 프리스케이팅 성적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가리킨다.

차준환은 14일 막을 내린 회장배 랭킹대회(2위)를 세계선수권대회의 전조전으로 삼

았다. 랭킹대회를 마친 뒤 그는 "실수를 보완해야 한다. 점프 연습이 더 필요하다. 종합선수권과 랭킹대회를 통해 실전 감각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차준환의 과제는 쿼드러플(4회전) 점프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혹독한 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 훈련이 어려웠기에 다소 애를 먹었던 측면이 있다. 그는 "항상 훈련하던 캐나다에 못 간 지 1년이 다 됐다"며 "계속 한국에서 훈련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지도 남다르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

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탓에 무려 13개월 만에 국제대회에 나선다. 2020년 2월 ISU 4대륙선수권대회(5위)가 마지막 국제대회였다. 그만큼 후회 없는 연기를 펼치고 돌아와야겠다는 각오다. 차준환은 "2020년에는 아쉽게 대회(세계선수권)가 취소됐다. 이번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4회전 점프도 실전을 통해서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차준환을 비롯해 여자 싱글의 김예림(18·수리고), 이하인(16·세화여고)도 출전한다. 여자 싱글의 쇼트 프로그램은 24일, 프리스케이팅은 26일 펼쳐진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sports2

스포츠투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시범경기·21일)

키움-롯데

1차전 (롯데 1승)

키움	0	0	0	0	0	0	0	0	1	1
롯데	1	0	1	0	1	0	3	0	0	6

2시간39분 관중 0

경기	승	패	세	회	구	석	수	안	홈	4사	희	실	자	타율		
안우진	1	0	1	0	5.0	64	20	18	5	2	2	0	4	3	2	3.60
장재영	6.3	1	0	0	0	0.2	33	8	5	2	0	3	2	3	1	13.50
김성진	6.2	1	0	0	0	1.1	10	4	4	0	0	0	0	0	0	0.00
김태훈	8.6	1	0	0	0	1.0	17	5	4	1	0	1	0	1	0	0.00
김진욱	1	1	0	0	2.2	44	10	8	0	2	2	0	2	0	0	0.00
김우영	3.2	1	0	0	0	0.1	4	1	1	0	0	0	0	0	0	0.00
서준원	4.3	1	0	0	0	2.0	31	8	3	0	0	0	1	0	0	0.00
오원택	6.2	1	0	0	0	1.0	19	4	4	1	0	0	2	0	0	0.00
김태우	7.6	1	0	0	0	1.0	9	3	3	1	0	0	0	0	0	0.00
최준호	8.9	1	0	0	0	1.0	14	3	3	0	0	0	2	0	0	0.00
김원준	9.3	1	0	0	0	1.0	24	5	2	1	0	0	2	1	1	9.00

KIA-삼성

1차전 (삼성 1승)

KIA	0	0	0	0	1	3	2	1	0	7
삼성	1	0	0	0	6	0	0	3	X	10

3시간7분 관중 0

경기	승	패	세	회	구	석	수	안	홈	4사	희	실	자	타율		
김원수	1	0	0	0	3.2	60	14	11	0	0	3	0	3	1	1	2.45
변시원	4.6	1	0	0	0	0.2	41	9	6	4	0	3	0	1	6	61.00
김민우	5.6	1	0	0	0	0.2	14	3	3	1	0	0	0	0	0	0.00
김현식	6.9	1	0	1	0	3.0	34	12	3	1	0	0	0	0	3	3.00
류재민	1	0	0	0	4.0	74	18	15	4	0	3	0	3	0	0	0.00
홍정우	5.1	1	0	0	0	1.0	24	5	4	2	0	0	1	1	1	9.00
양정섭	6.6	1	0	0	0	1.0	44	8	5	2	2	1	2	3	1	9.00
이상민	7.5	1	0	0	0	1.0	25	6	5	2	0	1	0	2	2	18.00
김보수	8.2	1	1	0	0	1.0	19	5	3	1	0	1	1	1	1	9.00
최지영	9.7	1	0	0	0	1.0	10	4	4	1	0	0	0	0	0	0.00

LG-한화

1차전 (한화 1승)

LG	0	0	0	0	0	2	0	0	2	2
한화	0	0	0	0	0	0	0	2	1	3

경기	승	패	세	회	구	석	수	안	홈	4사	희	실	자	타율		
김용석	4.8	1	0	0	0	4.0	64	19	16	5	3	0	2	2	4.50	
김영우	8.9	1	0	0	0	0.1	11	2	1	0	0	1	0	0	0.00	
이정후	9.2	1	0	0	1	0	1	8	2	2	1	1	0	0	0	0.00
카를로스	1	0	0	0	3.2	64	14	12	1	0	2	0	8	0	0.00	
김민우	4.6	1	0	0	0	0.1	7	2	2	1	0	0	0	0	0.00	
김영호	5.8	1	0	0	0	3.2	50	13	13	3	1	0	5	2	2	4.91
김재민	8.3	1	0	0	0	0.1	6	1	1	0	0	0	0	0	0	0.00
최우영	9.4	1	1	0	0	1.0	24	5	3	0	0	2	0	3	0	0.00

SSG-NC

1차전 (NC 1승)

SSG	0	0	0	1	0	0	0	0	2	3
NC	5	2	2	0	2	0	0	0	0	11

경기	승	패	세	회	구	석	수	안	홈	4사	희	실	자	타율		
김민우	3.6	1	0	0	0	0.0	15	3	1	1	0	2	0	0	0.00	
김태훈	3.9	1	0	0	0	1.0	15	3	2	0	0	1	0	0	0.00	
조영우	4.3	1	0	0	0	1.0	18	4	4	1	0	0	0	0	0.00	
이준우	5.7	1	0	0	0	3.0	58	15	12	3	0	3	6	2	6.00	
김원준	8.4	1	0	0	0	1.0	17	4	4	1	0	0	0	0	0.00	
최민수	1	1	0	0	0	3.0	59	13	12	2	0	1	0	4	0	0.00
송영기	4.5	1	0	0	0	4.0	58	15	14	2	0	1	1	1	2.25	
김민우	8.2	1	0	0	0	1.0	15	3	2	0	0	1	0	0	0.00	
최지영	9.5	1	0	0	0	1.0	22	6	5	2	1	1	0	1	2	18.00

KT-두산

1차전 (KT 1승)

KT	4	0	0	0	0	0	0	0	0	4
두산	0	0	0	2	0	0	0	0	0	2

경기	승	패	세	회	구	석	수	안	홈	4사	희	실	자	타율		
김민우	5.2	1	0	0	0	4.0	65	19	18	6	0	1	0	3	2	4.50
김민우	5.2	1	0	0	0	4.0	65	19	18	6	0	1	0	3	2	4.50
박민우	9.7	1	0	0	1	1.0	9	3	3	0	0	0	1	0	0	0.00
이정후	1.5	1	0	0	0	1.0	19	4	3	3	0	0	0	0	4	0.00
조영우	1.5	1	0	0	0	1.0	19	4	3	3	0	0	0	0	4	0.00
유희관	3.4	1	0	0	0	2.0	41	9	8	2	0	1	0	1	0	0.00
박용기	5.4	1	0	0	0	1.0	18	4	4	1	0	0	0	1	0	0.00
김민우																